

25.07.23.(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차진솔 비서관(이용우 의원실) 02-784-7091

민주 을지로委, “업종별 ‘더우면 쉴 권리’ 보장하라” ... 정부에 제도개선 연구 주문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성료
- ‘2시간마다 20분 휴식’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끝 아닌 시작 ... 업종·작업환경별 노출기준 규율 필요
-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휴식 부여 곤란하다고 휴식 안주면 노동자 죽으란 얘기 ... 정부가 업종별 규율방안 연구하라, 국회가 지원하겠다”

2025년 7월 23일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23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하 을지로위)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폭염 속 노동자들의 쉴 권리 확대를 위한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사망자 34명)에 달하는 실정이며, 올해 온열질환자도 7월 21일 현재 1,717명(사망자 9명)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여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원칙적으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무를 개정 규칙보다 더욱 구체화·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인아 교수(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는 “단순히 ‘몇 도 이상이면 휴식’ 정도의 규정에 그치지 말고, 산업현장 전반의 열 스트레스를 예방·통제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며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고용노동부 직업병안심센터, 지자체 등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건설노조 박세중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고용노동부가 타설노동자를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사비로 비싼 냉방조끼도 사봤지만 건설현장에서 30분도 안 돼서 녹아내려서 결국 버렸다.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사측의 인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쿠팡CFS에서 근무하는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도 “쿠팡이 휴게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다” 며 “휴게공간·냉방장치 확대 등에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 고 말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 정책위원장도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은 소득보장이 부족해 폭염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보장범위를 확대해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폐쇄된 농업인 질환 전문기관인 ‘농업안전보건센터’ 를 복원·확대하자” 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변 노동위원회의 문은영 변호사는 “폭염 속 노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종류, 작업의 장소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온도 위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면 ▲소규모사업장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업종별 대책이 시급하다. 작업환경·업종 등을 고려한 폭염 노출기준 구체화 및 규율방안 개선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제도개선 연구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강병열 경총 보건환경팀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제도 규칙 개정에 공감한다” 면서 “다만 일률적 휴식 부여의 어려움, 체감온도 측정장소의 모호성 등은 해결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도 꼭 필요하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신욱균 직업건강증진팀장은 “개정 규칙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할 경우 체력이 80%정도 회복된다’는 캐나다 연구를 받아 국내 전문가들과 토의한 끝에 마련한 것” 이라며 “예외조항의 경우 일반적인 보냉장구가 아니라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보냉장구로 한정할 측면도 살펴봐 달라” 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의 김경란 농업인안전팀장도 “농업인은 산재보험 대신 농업인안전보험에 들어 있어, 산재예방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예방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 이라며 “외국인을 농업

현장에 매칭할 때에는 사람만 매칭할 것이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 예산도 함께 매칭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 민병덕 위원장은 개정 규칙에 대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작업환경이라고 해서 휴식을 안 주면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얘기” 라며 “문은영 변호사 제안처럼, 예산을 들여서 작업환경·업종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연구 예산을 투입해달라.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 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에 “개정 규칙 관련 모니터링과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김동아·김문수·김윤·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았다. (끝)

[첨부 1 : 토론회 포스터]

[첨부 2 : 토론회 현장사진]

[첨부 3 : 토론회 자료집]

더우면 실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연속토론회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10간담회의실

좌장 | 국회의원 임미애

발제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제도개선 방향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현장
증언**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 정책위원장

토론 문은영 변호사
강병열 경총 보건환경팀장
신욱균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

주최 ^{의정}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
국회의원 김동아 · 김문수 · 김 윤 · 김현정
이강일 · 이용우 · 임미애



[첨부 2 : 토론회 현장사진]

